

사망사고의 지속적 감소

England 영국

지난 8년간 유럽연합 선진 국가 중 영국의 산업사망재해가 가장 낮음

감소 개요

- HSE(영국보건안전청)에 따르면 2012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년간 사업장 사망 사고자 수는 148명으로 전년도 172명 대비 감소. 특히 10만 명 당 사망자 비율이 5년 전 0.6에서 0.5로 감소
- 영국은 유럽 선진국 중에서도 지난 8년간 사망 사고수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

감소 발표 및 의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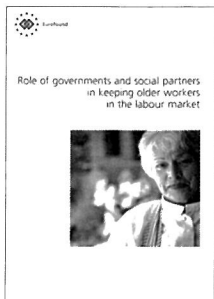
- 이번 감소 발표는 파이프 알파(Piper Alpha)* 사고 25주년을 즈음해 나온 것으로 더 큰 의미가 있음. 파이프 알파 사고 25주년을 기리며 다시 한 번 안전보건의 중요성 실감
- HSE는 비록 사망 사고자 수가 148건으로 전년 대비 크게 줄었지만, 여전히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영국이 지속적으로 재해 감소에 앞장 서야 한다고 주장
- 또한 HSE 대표는 '모든 근로자는 일이 끝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어야 한다'며 HSE의 리더십과 함께 근로자 참여, 효과적 위험관리 등이 목표 성취를 위한 방법임을 강조

세부적 감소 사항

- 건설업 사망사고는 2011년 48건이던 것이 2012~2013년 동안 39건으로 감소
- 농업 재해는 29건이며 10만 명 당 사망건수는 8.8건으로, 35건에서 크게 감소
- 쓰레기 및 재활용 업계 사망사고는 2011년 5건에서 약 2배 증가하였음

*파이퍼 알파(Piper Alpha) 사고: 1988년 7월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사의 파이프 알파(Piper Alpha) 석유 굴착선이 북해에서 가스누출로 폭발해 167명이 숨진 사고

고령근로자를 위한 정부와 사회파트너의 역할



Europe 유럽

보고서 발간 목적

- 유럽의 55~64세 고령 근로자의 작업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, 전반적인 인구의 평균 나이가 증가하고 있음
- 인구학적 변화와 지속적인 국가의 복지 및 연금 시스템으로 인해 더 오랫동안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
- 보고서를 통해 국가별, 분야별 기준에서 고령근로자를 위한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들의 활동을 촉구
- 재정적인 인센티브제도와 작업환경의 증진 등에 대한 방법들을 포함

주요 활동 및 현황

- 2001년 스톡홀름 유럽위원회 회의에서 고령 근로자와 유럽 회원국들의 고용 및 생산성 증가를 위한 경제적 원칙들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
- 위원회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인구학적 변화를 바탕으로 더 나은 작업 활동을 위한 중요성을 강조
- 유럽 2020전략상에서 고령근로자의 고용률을 명기하지는 않았으나, 20세~64세 근로자의 고용율을 75%로 정함
- 국제보건기구(WHO)는 'Active Aging'이란 용어를 채택하고, 나이가 들어도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도록 건강, 참여, 보장을 위한 최적화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
- 유럽연합내의 많은 기관에서 이미 작업환경 향상을 통한 고령근로자의 고용 증진을 위한 많은 연구를 수행
- 보고서를 통해 고령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제거하고 차별을 극복하고자 함

주요 내용

- 유럽의 인구학적 변화 : 사실과 정책적 내용
- 국가별 정책
- 고령 활동인구 증진을 위한 방법
- 사회적 파트너들의 관점
- 결과 및 참고자료 등